

### [종합·해설]

## 靑, 이명박 후보 검찰 고소 방침

# 대선 100일 앞두고 초강수...靑-한 전면전



이명박 후보를 비롯, 한나라당 인사들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장상 “민주당 DJ와 불협화음 유감”

○민주당 장상 대선 예비후보는 5일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불발요하고 유감스러운 언설을 하고 있다”면서 “해탈정책과 중산층을 위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이념을 계승하는 장 상이 대통령 후보가 돼 화해의 메시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없는 대통령은 미안하며 대통령이 없는 정권강축이 불가능하다”면서 “반드시 대통령 후보가 되어 민주당 중심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날 국립 5·18주모자를 참배한 뒤 이어 광주 YWCA와 교단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 김민석 “경선일정 조정 부도덕한 행위”

○민주당 김민석 대선 예비후보는 5일 “당 지도부가 경선일정을 특정인의 이익대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일반 선거에서 선거구를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똑같은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제주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제주경선은 이미 국민에게 공표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당 및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광주로 이동, 한국지체장애인에협회와 양모시장을 돌며 장애인 취업정책과 재택시정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당 정책위원회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청와대가 5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대선국에 한바탕 파란이 일 조짐이다. 대선을 불과 100일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청와대가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소기로 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예정이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전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최근 ‘이명박 후보 죽이기’를 위해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후를 청와

대도 지목한 것은 비겁하고 얌은 정치공작”이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청와대 비방’이 너무 터무니 없는 것이고 이를 묵과했다가는 국가기관이 상처를 입게 되면서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후보를 검찰에 고소기로 했다는 얘기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정치적 공방을 일일이 고소한다면 앞으로 대선국에는 매일 고소, 고발로 얼룩지게 될 것”이라며

“뭔가 다른 공공이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 속내 중 하나로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정운채 전 청와대 비서관 비리의혹 사건으로 풀려 있는 여론의 파గు운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국전환용 카드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범여권의 한 의원은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몰라도 한참 모를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정면돌파로 승부할 뿐 측면돌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침묵하던 노 대통령이 최근 이따

# 여론조사 유효응답 절반 안돼 '유령 선거인단' 의혹 또 일 수도

## ■ 민주당 예비경선서 드러난 문제점

대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의 1차 관문인 컷오프(예비경선)가 5일 마무리되면서 지난달 21일 선거인단 모집으로 시작된 신당 국민경선 1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신당은 대대적인 홍보물리를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여권측으로 돌려놓았다며 잔뜩 기대감을 쏟아냈지만, 반환점을 돈 경선 과정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싸늘하다.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 본격경선 틀의 일부 핵심 정점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이다. 경선 과정 초창부터 '유령 선거인단' 모집 의혹과 무차별적 전화, 문자 공세 등 동원선거, 조직선거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촉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가 동원선거 의혹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이렇다할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쓸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당장 컷오프를 위해 3~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놓고도 '뒷맛'이 무성하다. 여론조사 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투입된 각 캠프의 참관인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뒷얘기들이 새어나오고 있다. 우선 설문자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전화를 돌려가며 있는 1만명 선거인단 여론조사의 최종 유효

응답률은 전체 1만명 가운데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측은 “전화 불통 1천866명, 걸려온 933명이었으며 전화가 연결된 7천201명 가운데 '지지후보가 없다'고 답한 1천834명, '본인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622명, '연령 오류' 19명, '주소 오류' 12명을 제외하면 유효 응답자 규모는 4천714명으로, 50%도 안 된 것으로 국경위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당 국민경선위가 선거인단 명단 확정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결번 등을 주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선거인단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는 20~30대 젊은 층의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져 여론조사기관이 샘플 추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여기에 1인당 2명의 후보를 고르게 돼 있는 '1인2표제' 방식이다 보니 표심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우에 따라 탈락자들이 쉽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설부터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경위가 컷오프 순위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캠프별로 앞다투어 ‘수위’를 주장하는 등 대혼전이 거듭된 가운데 순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캠프간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막판 신경전이 계속됐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장 간담회에 참석, 아프간 사태 해결과정에서 카불 현지 협상지휘 활동 등이 언론에 노출돼 논란이 됐던 김만복 국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총선 출마 안해”

### 김만복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은 5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자신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며 의혹을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장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국정원장의 노출과 고향에 화환 보내기 등이 향후 정치활동

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3번이나 (총선출마) 안한다고 말했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론 노출과다’ 등과 관련한 계속된 질문에 “인론에 경의(驚氣)가 든다”는 말로 자신의 행보에 대한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일체 언급을 삼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7월중에도 국정원을 방문하여 했는데 아프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가지 못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을 다녀온 후 여러 일정을 감안해 추시 전에는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문국현 “내달말까지 신당 창당”

### “孫 신당후보 선출 상상안돼”

범여권 ‘장외후보’인 문국현 전 유한칼리리 사장은 5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신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늦어도 10월말까지 만들겠다”며 독자창당 방침을 공식화했다. 문 전 사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부패하고 투기에만 열중하는 세력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당에 맡겨 두지 못하는 만큼, 21세기 한국을 이끌 정당의 창당은 불가피하다”며 이날 발표한 뒤 “양심적 지적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화자, 정치인, 관료 등 수많은 분들이 합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통합민주당 내부의 경선선 합류 요청 움직임에 대해 “특별히 사비 속에서 가족과 자신을 배불리며 국민을 희생시킨 지도자들 우리 사회에서 버려지고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가치관이 다를 뿐

더러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만큼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다”며 거부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 그는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하며 투기세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같은 분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면서도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12월19일 지지를 받지 못할테니, 한 분은 과거에 안주하려 하고 다른 한 분은 중도보수이긴 진보라 할 수 없다”며 신당 유력 후보인 손학규, 정동영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특히 손 후보를 지목, “민주화운동을 한 좋은 과거를 갖고 있지만,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13~14년 살아온 삶은 상대인 후보와 너무나 비슷하며 대한민국 재창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분이 신당 후보로 선택되는 일은 상상 내지 가정하기조차 쉽지 않으니, 이를 막기 위해 미래세적이 10월 하순까지 확고한 민심을 확보해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연합뉴스

**건설입면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 법인 M&A (분할 합병)
-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 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호남지사**

TEL : (062) 226-6300  
FAX : (062) 943-2244

**고시원 매매**

- ♣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 ♣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 입니다.

- 5층건물 매매가795천 (용자395천 포함)
- 6층건물 매매가795천 (용자395천 포함)
- 6층건물 매매가895천 (용자49천 포함)
- 7층건물 매매가995천 (용자399천 포함)
- 4층 6층건물 매매가720억 (용자697천 포함)

**♣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 하십시오**

**H.P: 011-604-5239**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술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지망 및 취업성공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용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 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인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인증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후추진)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I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우 무등고시원  
★접수방법 : 신청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수)

○ 추후에 가족친지들이 모인자리에 마술을 연출해 보세요. 즐거움 추억이 됩니다.  
○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이유회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산행안내**

9월 8일(토)

- ▲빛고을대신악회 경남 회원 자리산 정지계곡 9월8일(토) 08시 투에외과 후교출발 T.010-7173-8516
- ▲무등도요신악회 중부계곡 열악산 9월8일(토) 08시45분 사정(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mudang1028 T.010-9242-8000
- ▲해빙브라더스악회 충북 괴산군 노성산(유령산) 9월8일(토)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1-9617-6888, 016-605-1266, 017-601-1387
- ▲진월백두산악회 안동 전북 철수대 눈산 9월8일(토) 07시30분 진월백두산미드(광주역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오산회 강릉:정식 가리왕산 9월9일(일) 05시30분 사정(역출발) T.016-611-1509
- ▲남부산악회 경남 시대산 10주년 총회 9월9일(일) 07시30분 백면과술산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메이저악회 문정 조령산 9월9일(일) 07시 사정(문예회관경정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misyw T.011-601-2894
- ▲산과화랑 계동산(갑사-평음굴-동화사) 9월9일(일) 08시 광주역 앞 출발 후다듬가래:남부산악회 T.011-619-4609
- ▲산악신우회 경북 괴산 최보산-보배산 9월9일(일) 07시 영주세곡(천안지방장.유곡버스정류장)출발 T.365-3612, 011-649-3612
- ▲광주인프스산악회 경남 학악 남부유사 9월9일(일) 07시30분 대이광장(삼정체육플라스경유)출발 T.267-5307, 010-4616-1460
- ▲광주산악인회 경남 무마산 9월9일(일) 07시30분 문예회관후문 출발 T.011-614-48260
- ▲광주산악회 버섯 회양굴-사지봉 9월9일(일) 07시30분 대안관광(삼정체육플라스경유)출발 T.019-499-1405, 011-9624-3857
- ▲광주배두라산악회 출구 유산 사계산 9월9일(일)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오산회 강릉:정식 가리왕산 9월9일(일) 05시30분 사정(역출발) T.016-611-1509
- ▲남부산악회 경남 시대산 10주년 총회 9월9일(일) 07시30분 백면과술산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솔빛산악회 충북 괴산 칠보산, 노대산 9월9일(일) 07시30분 광주역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08-7627, 011-635-5394
- ▲광주메이저악회 문정 조령산 9월9일(일) 07시 사정(문예회관경정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misyw T.011-601-2894
- ▲광주배두라산악회 금수산 9월9일(일) 07시30분 사정(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솔빛산악회 충북 괴산 칠보산, 노대산 9월9일(일) 07시30분 광주역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08-7627, 011-635-5394
- ▲삼각산악회 충남 논산군 계동산(단산) 9월9일(일) 07시 영주세곡(천안지방장.유곡버스정류장)출발 T.017-601-7633

9월 10일(일)

- ▲광주배두라산악회 금수산 9월9일(일) 07시30분 사정(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배두라산악회 금수산 9월9일(일) 07시30분 사정(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배두라산악회 금수산 9월9일(일) 07시30분 사정(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배두라산악회 금수산 9월9일(일) 07시30분 사정(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9월 11일(화)

- ▲광천산악회 비유산(숫갯봉) 9월11일(화) 07시40분 광천과술산사(산)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원정산악회 전북 연산 내소산(연승봉-용정봉) 9월11일(화)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비담산악회 전북 진안 선각산 대운 동 계곡 9월11일(화) 07시50분 여주세곡(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원정산악회 전북 연산 내소산(연승봉-용정봉) 9월11일(화)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9월 12일(수)

- ▲광주한곡산악회 강원도 두리산, 정북산 9월12일(수) 08시 여주세곡(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경남 합천군 가회면 모산 9월12일(수) 08시 광주배두라산악회(문예회관)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이대도산악회 자연산 평양(비바의 강대봉) 9월12일(수) 08시 동아백운(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후다듬가래:이대도산악회 T.011-609-0688
- ▲광주배두라산악회 금수산 9월9일(일) 07시 사정(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배두라산악회 금수산 9월9일(일) 07시 사정(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9월 13일(목)

- ▲광주배두라산악회 금수산 9월13일(목) 07시30분 광주배두라산악회(문예회관)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9월 15일(토)

- ▲광주한남산악회 설악산 공릉정사 무비2일산행 9월15일(토) 21시 근이회 관후문 출발 cafe.daum.net/one-ninckbyeclub T.010-7172-3889
- ▲광주도요신악회 대전 최장산 9월15일(토) 08시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rigutoyo T.011-618-2267, 011-631-2054

9월 16일(일)

- ▲다음가래:배두라산악회 삼정(화) 9월16일(일) 07시30분(문예회관)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원정산악회 전북 연산 내소산(연승봉-용정봉) 9월16일(일)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 ▲광주원정산악회 전북 연산 내소산(연승봉-용정봉) 9월16일(일)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

9월 18일(수)

- ▲광주원정산악회 전북 연산 내소산(연승봉-용정봉) 9월18일(수)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후다듬가래:광주배두라산악회 T.011-610-0871